CJ대한통운 "물류현장 반복·단순 작업, 로봇이 대신한다"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착수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기술 실증
자율판단 '에이전틱 AI' 탑재 예정
올해 말부터 물류센터 시범 투입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CJ대한통운 김정희 TES물류기술연구소장(왼쪽)이 레인보우로보틱스 허정우 기업부설연구소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이 물류산업 현장에서 일할 날도 머지 않았다.

인간과 로봇이 일자리를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모습이다.

CJ대한통운은 물류용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동 개발하기위해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이족보행 로봇, 사족보행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2028년까지 이족보행 플랫폼을 양산화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수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실제 물류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혁신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류는 같은 공정을 반복하는 제조업과 달리 매일 수많은 종류의 상품을 다뤄야 해 자동화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산업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고정형 자동화 설비 대신 사람처럼 판단하고 동작하는 휴머노이드가 물류산업에 최적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설비에 맞춰 물류센터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고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도 넓어 유연성과 확장성에서도 장점이 많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이동형 양팔로봇, 자율이동로봇(AMR) 등 다양한 로봇 하드웨어 기술을 제공한다. CJ대한통운 물류 환경에 적합한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다.

CJ대한통운은 물류 작업을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에이전틱 AI'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이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고도화된 인공지능이다.

양사는 AI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 수집을 통해 로봇 행동 알고리즘을 완성한 뒤 올해 말부터 현장 실증 프로젝트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후 협력 성과물은 주요 물류센터에 순차 적용하며 향후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다.

CJ대한통운 김정희 TES물류기술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스스로 최적의 판단을 내리고 움직이는 AI 로봇을 물류 현장에 투입하는 국내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AI와 로보틱스의 융합을 통해 차세대 물류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K-휴머노이드 로봇 연합'에도 참여한다.

이 연합은 국내 휴머노이드 산업 발전을 위해 로봇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모인 협의체로, CJ대한통운은 로봇수요기업으로서 기술 적용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대한상의 "기업 짓누른 10년 규제… 숨통 죄는 노동·환경"

기업부담지수 105.5 기준치 상회
조세는 줄고 규제 부담은 더 커져
노동규제 체감도 112로 최고 수준
"플랫폼 다 막혀 성과 어렵다" 토로

대한상의 회관 전경. /대한상의

지난 10년간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직된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나 탄소배출에 따른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지난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상회하고 있어 기업들이 각종 의무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 27%에서 2023년에 24%로 조정되는 등 세율과 과표구간에 변화가 있었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규제부담은 102.9로 10년 전(88.3) 대비 크게 높아졌다. 실제 노동규제(112.0), 진입규제(101.1), 환경규제(99.3), 입지·건축규제(99.2) 등 모든 규제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규제 부담지수가 112로, 기업들이 큰 부담으로 느낀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며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중심으로 고용유연성이 지극히 낮은 우리 노동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며,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법령에 대한 압박이 반영된 것"으로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스타트업, 정부 관계자, 학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됐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사업은 거의 다 막혀 있는 형국"이라며 "경쟁국들은 빠르게 혁신해 가는데 우리는 규제나 기득권 반발 등에 막혀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에 기업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옳은 길"이라며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교원 웰스, '슈퍼브랜드 데이' 진행

오늘부터 20일까지 프로모션
정수기 4종 최대 88만원 혜택 제공

교원 웰스(Wells)가 G마켓과 손잡고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슈퍼브랜드데이를 연다.

17일 교원 웰스에 따르면 이번 공동 프로모션은 가정의 달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5월을 앞두고 정수기 구매를 고민 중인 고객들을 위해 마련했다.

특히, 직수형 냉온정수기 신제품 '슬림원'을 포함한 인기정수기 4종을 최대 88만원 상당의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다.

먼저 한 뼘 크기에 차별화한 정수 성능을 갖춘 슬림원을 12개월간 렌털료를 반값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5만원 ▲스마일캐시 10만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18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는 G마켓 라이브 방송 중 계약하면 제습기 사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미니맥스 공기청정기'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외에 여름철 얼음 걱정 없는 1kg 아이스룸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멀티 쿨링 기능의 '슈퍼쿨링 정수기', 초소형 무전원 '미미 정수기'를 특별한 조건에 제공한다. 일부 모델은 제휴카드 및 라이브 방송을 활용하면 무료 렌털도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K-디스플레이 中 저가 공세에도 '선방'

패널 기업 매출액, 전년비 13.3%↑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도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고부가가치 제품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집중하며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17일 발표한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패널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442억달러로 집계됐다.

이중 OLED는 전년 대비 15.1% 증가한 363억달러, 액정표시장치(LCD)는 5.9% 증가한 79억달러로 집계됐다.

애플 아이패드에 OLED가 최초로 적용됐고, 인공지능(AI) 확대로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저온다결정산화물(LTPO)OLED 수요가 늘어나며 한국 기업의 매출액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OLED 매출 비중이 2021년 69%에서 2024년 82.1%까지 증가하며 OLED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지난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33.1%로 전년 대비 0.1% 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48.1%에서 50.8%로 2.7%p늘었다. 반면 대만(16.7%→14.6%)과 일본(1.7%→1.1%)의 점유율은 하락했다.

지난해 글로벌 OLED 시장 규모는 전년(428억달러) 대비 26.2% 증가한 54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승용 기자

코웨이

"전기 없이도 똑똑하게" '무전원 정수기' 선봬

코웨이가 친환경 무전원 정수기 '스위치 정수기(P-2200N)'를 선보였다.

17일 코웨이에 따르면 스위치 정수기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주방 구조에 맞춰 공간 제약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제품은 지난 3월 열린 국제 물산업박람회 '아쿠아텍 암스테르담 2025'에서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스위치 정수기는 카운터탑 방식으로 주변 환경과 인테리어에 맞춰 가로형 또는 세로형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다.

가로 11cm의 슬림한 디자인으로 좁은 주방에도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추후 싱크대 아래에 본체를 배치해 주방 공간을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빌트인 타입 설치 키트도 출시할 예정이다.

제품은 별도의 코드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전원 정수기로 설치 위치의 제약과 전기세 부담을 해소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에너지 절감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추출 핸들을 돌려 출수량을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퓨리오사AI

AI칩 '레니게이드' 출시

MS 애저 마켓플레이스에 진입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가 자사의 2세대 AI 가속기 '레니게이드(RNGD)'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마켓플레이스'에 공식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출시로 전 세계 애저 이용자들은 고성능 AI 추론 환경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퓨리오사AI는 2017년 설립된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으로, 삼성전자·AMD·퀄컴 출신 엔지니어들이 공동 창업했다. 지난 2022년 1세대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출시한 데 이어 2세대 레니게이드를 통해 글로벌 AI 가속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레니게이드는 대규모언어모델(LLM)과 멀티모달 모델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데이터센터용 AI 추론 전용 반도체다. 지난해 8월 '핫 칩스 2024' 컨퍼런스에서 첫 공개 이후 글로벌 반도체 및 AI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제품은 클라우드 중심 환경뿐 아니라 온프레미스(사내 구축형), 하이브리드 환경에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애저 플랫폼을 사용하는 고객은 별도 인프라 구축 없이도 몇 분 안에 AI 추론 환경을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인프라 규모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 hyem@